

일본의 학교교육상담체제의 현황과 과제

장신애*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스쿨카운슬러(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를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일본의 학교교육상담체제를 살펴봄으로써 학교현장에 필요한 상담의 전문성과 학교에 있어서의 연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이지메(いじめ)와 부등교(不登校)로 인해 1995년부터 스쿨카운슬러를 비상근으로 각 학교에 파견하였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년 12월 「팀으로서 학교의 바람직한 방향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답신)」를 통해 심리 전문가인 스쿨카운슬러를 정규 직원으로 규정하고 학교에 확대배치하기 위해, 직무내용과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밝혔다.

지금까지 일본의 스쿨카운슬러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되어 왔는데(김인규, 2011) 스쿨카운슬러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스쿨카운슬러와 학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최근 동향을 반영한 학교교육상담체제에 대해서는 고찰되지 않았다. 전문상담교사를 교사의 자격으로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임상심리사 등을 배치하고 있는 일본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문성과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일본에서 행해진 선행연구와 교육상담에 관련된 문헌 및 문부과학성의 자료를 활용하여 문헌분석을 하였다.

II. 본론

1. 일본의 학교교육상담체제의 변천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guidance'와 'counseling'의 개념이 도입되어 학교에서 상담이 학생 원조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西山, 2012).

학교교육상담은 학교 내의 부등교(不登校), 비행, 학교폭력, 이지메(いじめ), 자살 등의 문제행동이 발생함에 따라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문부성은 교육상담의 중앙연수강좌를 개최하고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교육연구소에 단기양성강좌를 개최하였다. 당시 카운

* 일본 츠쿠바대학(筑波大學) 교육기초학 박사과정. 교신저자 (jsa8583@hotmail.com)

슬러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자격인정제도와 양성기준도 없이 연수회만 개최되는 상황이었다. 연수회의 목표는 교과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카운슬링의 이론, 기술과 마인드를 지도하여 교내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교육상담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었다(松原, 1988). 이렇듯, ‘카운슬링 마인드’를 강조하며 상담을 교사의 기본적인 자질로 보는 한편, 전문성을 가진 교육상담담당교사가 특화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2. 스쿨카운슬러제도의 도입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지메(いじめ)와 부등교(不登校)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부성은 1995년 「스쿨카운슬러 활용조사연구위탁사업」을 시행하여 스쿨카운슬러를 학교에 파견하였다. 스쿨카운슬러라는 용어는 문부성의 사업으로 정착된 것으로 그 정의는 사업의 자격조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임상심리사 자격인정협회의 인정을 받은 임상심리사」가 스쿨카운슬러의 84%(2014년)를 차지하고 있어, 스쿨카운슬러를 ‘학교임상심리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스쿨카운슬러로 임상심리사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1988년에 시행된 임상심리사자격이 1990년에 문부성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지메와 부등교 현상이 심각해지며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대립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문부성은 교사가 아닌 임상심리사를 스쿨카운슬러로 배치할 것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교사와 카운슬러의 전문성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스쿨카운슬러는 ‘마음의 전문가’로 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연계, 협력한다는 것이다(氏原외, 1998). 또한 교사와 다른 제삼자적 존재라는 ‘외부성’을 가지고 학교체제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3. 학교의 입장에서 본 스쿨카운슬러

우선 스쿨카운슬러가 학교에 배치되기 전 교육상담을 둘러싼 상황을 살펴보면, 담임교사와 ‘학교카운슬러(學校カウンセラー)’(松原, 1988), 양호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상담이 행해지고 있었다. 학교카운슬러는 스쿨카운슬러를 구분하기 위해 ‘교사카운슬러(教師カウンセラー)’로 불리다가 현재 교육상담담당교사로 불리고 있는데 주로 교육상담관련연수를 받은 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수업과 겸임을 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인 스쿨카운슬러가 배치되고 나서 교사는 학생문제의 ‘문지기’ 역할을 맡게 되었다(保田, 2014).

스쿨카운슬러에 의한 실천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학교의 입장에서 보고된 내용을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스쿨카운슬러의 근무형태(비상근)로 인해 정보교환과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百瀬외(2016)는 연계의 어려움으로 스쿨카운슬러와 교사가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사는 스쿨카운슬러에게 심리와 교육의 두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高

田외(2016)는 교육상담담당교사와 스쿨카운슬러가 행하는 자문에 대한 교사의 평가와 기대를 비교하여, 교사는 교육상담담당교사의 관계촉진과 어세스먼트(평가) 기술을 스쿨카운슬러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기대도 높다는 것을 밝혔다.

4. 학교와 스쿨카운슬러의 역할과 연계

2015년 12월 중앙교육심의회는 「팀으로서 학교의 바람직한 방향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답신)」를 발표한 이후 「교육상담 등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를 구성하여 2017년 1월 「학생 교육상담 충실에 대해-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는 조직적인 교육상담체제 만들기(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스쿨카운슬러의 가이드라인(시안)이 게재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시안)에서는 스쿨카운슬러의 직무내용으로 ①학생에 대한 상담, ②보호자에 대한 조언과 원조, ③학생집단, 학급과 학교집단에 대한 어세스먼트(평가)와 조언·원조, ④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교육프로그램 실시, ⑤부등교, 이지메와 폭력 등 문제행동, 빈곤, 학대 등과 자연재해, 돌발적인 사건·사고에 대한 원조, ⑥교직원에 대한 자문, ⑦교직원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교내연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市町村) 교육위원회와 교장의 역할을 명기하고 있다. 특히, 교직원을 ‘교육상담코디네이터’로 지정·배치하여 교내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조정, 케이스회의의 개최 등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스쿨카운슬러의 비밀엄수의무와 보고의 밸런스, 정보교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외부의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함에 있어 스쿨카운슬러의 역할을 명백히 하고 학교조직 구성원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새로운 학교교육상담체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일본에서도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counseling’의 개념이 도입되어 교육상담이 시작되었다. 상담연수를 실시하여 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내에서 상담이 실천되어 온 것은 우리나라와 문맥을 같이 하지만,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교사와는 다른 심리의 전문성을 가진 스쿨카운슬러를 학교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스쿨카운슬러제도는 공교육의 장에 처음으로 외부의 전문가를 도입한 것으로 학교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았다. 20년 동안 학교 내부의 교육상담체제와 외부 전문가인 스쿨카운슬러와의 연계의 어려움이 지적되어 왔는데, 스쿨카운슬러를 학교에 상근 배치함으로써 새로운 교육상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역할분담과 각 영역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스쿨카운슬러는 임상심리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으로, 임상심리사의 교육과정에

‘학교임상실습’은 있지만 별도로 학교현장에 필요한 상담지식과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스쿨카운슬러는 교사와 다른 제삼자적 존재라는 ‘외부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이는 상담 전문가인 동시에 교사인 이중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의 전문상담교사(김지연외, 2015)와 달리, 스쿨카운슬러의 ‘심리의 전문성’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심리와 교육의 두 시점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스쿨’에 적합한 카운슬러의 자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자, 동료교사, 학부모 등 많은 관련자와 함께 일하며(이지은, 2014), 다양한 요구를 감당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경우, ‘교육상담코디네이터’가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스쿨카운슬러와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원활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담당자의 역할규명과 동료교사의 역할분담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과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일본의 정책방향과 학교현장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규(2011). 한국의 학교상담 체제. 교육과학사.
- 김지연, 김동일(2015). 전문상담교사의 직업 적응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6(1). 73-93.
- 이지은(2014). 교장, 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인식 분석에 기초한 전문상담교사 역할 모형 탐색.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氏原寛, 村山正治(1998). 今なゼ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なのか. ミネルヴァ書房.
- 中央教育審議會(2015). チームとしての学校の在り方と今後の改善方策について(答申)
- 教育相談等に關する調査研究協力者會議(2017). 兒童生徒の教育相談の充實について:學校の教育力を高める組織的な教育相談体制づくり(報告)
- 高田大二郎, 網谷綾香(2016). 小學校の教育相談担当者が行うコンサルテーションへの教師の評価と期待:スクールカウンセラーによるコンサルテーションとの比較を通して. 佐賀大學教育實踐研究, 33. 161-170.
- 西山久子(2012). 學校における教育相談の定着をめざして. 株式會社ナカニシヤ出版.
- 松原達哉(1988). 學校カウンセリングの組織と運營. ぎょうせい.
- 百瀬亞紀, 加瀬進(2016). 教員と福祉・心理専門職の連携に關する研究:双方の立場から見えてくる連携上の課題を中心に. 東京學芸大學紀要, 67. 21-28.
- 保田直美(2014). 學校への新しい専門職の配置と教師役割. 教育學研究, 81(1). 1-13.